

# 정보통신기술인력 실태조사

김보은/한국정보통신산업협회 동향분석팀

한국정보통신산업협회에서는 지난 1995년부터 정부 정보통신부문 공식 통계 승인기관으로 정보통신부문 산업통계조사를 지속해 왔다. 본 실태조사는 2001년 3월 1일까지 교육인적자원부에 등록된 4년제 대학 186개교 중 2001년 4월 6일부터 5월 16일까지 정보통신기술인력의 기초 현황조사에 응한 정보통신부문 대학을 포함하는 143개 대학교를 대상으로 한 '정보통신기술인력 실태 조사' 결과이다. 단, 무응답(non response) 대학은 Sequential Hot-Deck Imputation 방법을 통해서 보정하였다.

## 1. 조사목적

국내 정보통신산업의 인력수급현황에 대한 중요성이 인식되는 바, 정보통신산업의 인력현황에 대한 효율적인 정책 수립에 도움을 주고자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하고 있다.

## 2. 조사결과

본 실태조사는 정보통신기술인력실태조사 중 기술 인력의 배출현황을 위주로 살펴보고자 한다.

정보통신 분류체계에 따르면, 정보통신산업은 정보통신 산업 외에 타 산업 중 정보통신관련부문까지 포함하고 있다. 정보통신산업은 정보통신서비스, 정보통신기기, 소프트웨어 및 컴퓨터관련서비스로 분류가 된다.

이에 따라 국내 대학의 학과별 특성을 고려하여 정보통신기술인력현황을 기기관련학과, 소프트웨어관련학과, 통신관련학과 및 기타관련학과로 분류를 하였다.

### 가. 정보통신기술인력 입학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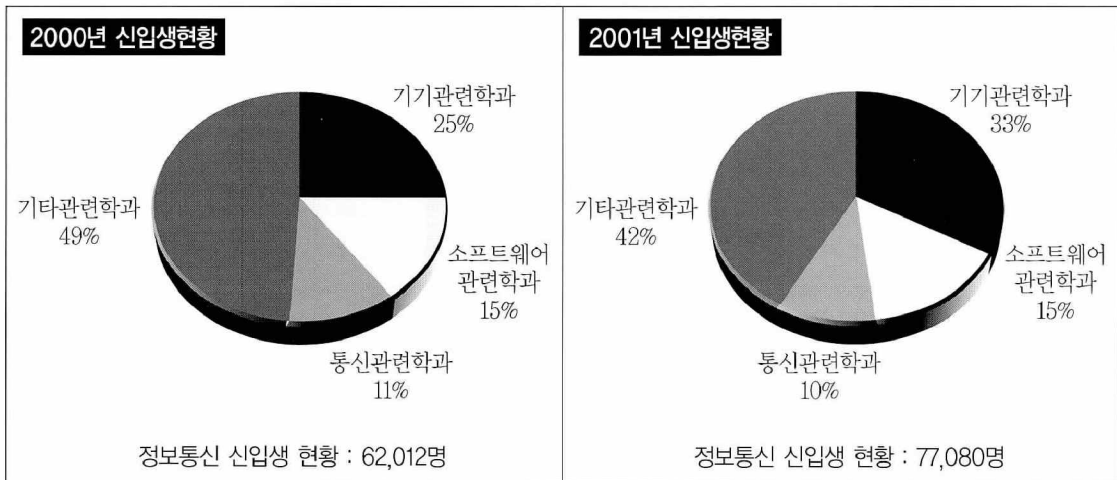
○ 전국 4년제 대학교를 대상으로 각 대학의 정보통신부문 관련학과 수는 전년에 비해 크게 줄었는데, 이는 학과들이 전문화·특성화되고 있는 한편 기타관련학과의 재조정 역시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구 분	전체	기기관련학과	소프트웨어관련학과	정보통신관련학과	기타관련학과
2000년 학과수	602	168	144	73	217
2001년 학과수	501	180	124	47	150

○ 해마다 신입생 수는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2000년에 비해 기기관련학과와 신입생 증가 비율이 두드러진다.

○ 교육인적자원부의 첨단관련학과에 대한 BK21 지원대책으로 관련학과 증설과 신입생 수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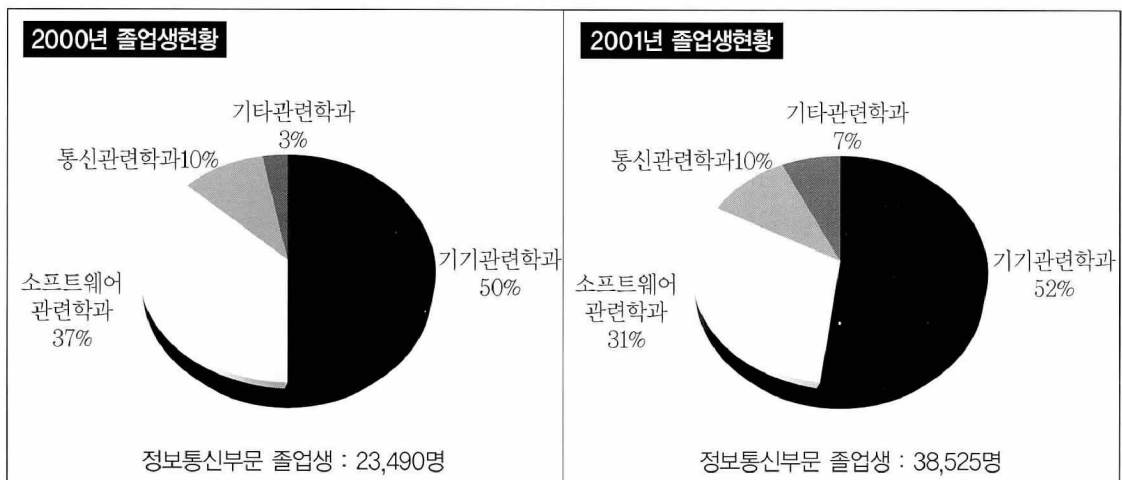
[그림 1] 정보통신산업 신입생현황



나. 정보통신기술인력 졸업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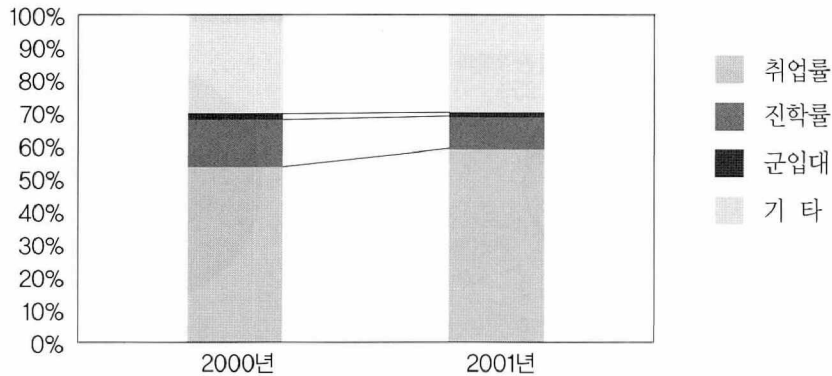
○ 해마다 정보통신관련부문의 인력은 지속적인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으며, 2000년 대비 기기관련학과와 졸업생 비율이 증가한 반면 소프트웨어관련학과는 약간의 감소

[그림 2] 정보통신산업 졸업생현황



- 정보통신부문의 취업률은 해마다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음
- 정보통신부문의 취업률은 전년도에 비해 약간 증가한 반면에 진학률은 IMF이후 경기회복기에 접어든 후 증가하였다가 2001년에 다소 감소

[그림 3] 정보통신산업 관련학과 졸업후 현황



#### 다. 정보통신기술인력 문제점

정보통신산업의 성장에 가장 큰 어려움을 꼽는다면 크게 재정부문과 인재양성일 것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보통신분야에 대한 장기적인 관점의 투자와 더불어 체계적인 교육프로그램 개발과 기술개발이 병행하여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 3. 정보통신기술인력 실태조사 정책적 결론 및 정책적 합의

정보통신기술인력부문의 취업율은 지속적인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정보통신부문에 대한 호황은 언제까지 지속될 것인지는 아직 미지수이다. 따라서 여러 가지 유형의 복합적인 분야 기술이 확대되고 있는 시점에서 인력 양성이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겠다.

현재의 정보통신분야의 인력문제에 대한 유연한 대처를 위해서는 관련산업 및 전 산업의 유기적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체계를 확립하고 문제점 해결에 모두 노력을 해야할 것이다.

향후 정보통신관련산업에서 많은 인력수요가 필요로 할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벤처와 네트워크산업과 같은 기술집약적인 산업위주에 구조조정이 이루어지고 있어 정보통신산업 전 부문에서 인력부족현상이 지속되어 가고 있으며, 이는 우리나라 교육환경이 변화를 따라오지 못한 점에 대한 한계를 표출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많은 대학인력들이 사회적응과 같은 새로운 프로그램에 의해서 재교육프로그램을 통한 새로운 환경으로

돌아가는 현상은 분명한 사회적 낭비로 드러나고 있다.

이러한 총체적인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으로 가장 원천적인 대학 교육의 정상화를 이루는 것에서 해법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이와 병행해서 정부의 지원책과 대안들이 사회적인 기여로 장기적인 투자와 인재양성이 IT강국으로 진입하는 초석이 될 것으로 믿는다.

이는 정부와 대학이 서로 유기적인 관계를 유지하여 서로 노력해야 할 부문이다.

또한 기업체 역시 최종적인 기술인력 수혜자로 인력양성 프로그램 개발 등과 같은 부문에 투자를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이런 유기적인 관계가 서로 복합적으로 조화를 이뤄 정보통신기술인력 양성을 체계적으로 행할 때 비로서 정보통신산업의 중요한 밑거름이 될 것이다.

## 회 원 사 소 식

### ■ 하이텔, 유무선 연동 스케줄 관리 서비스 오픈

한국통신하이텔(주)은 개인 일정, 기념일, 할 일, 메모 등의 개인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개인화 서비스인 '하이텔2000'의 마이 캘린더 서비스를 웹 화하여 지난 16일 오픈했다.

이용자가 자신의 컴퓨터에 저장된 데이터를 가지고 다니지 않아도 어디서나 하이텔 웹 캘린더 (<http://cale-ndar.hitel.net>) 서비스에 접속하기만 하면 개인정보를 손쉽게 관리할 수 있다.

제공되는 서비스에는 자신의 일정을 시간별로 등록할 수 있으며 알람시간에 맞추어 하이텔메일, 하이텔 메신저 아이맨으로 일정메시지를 받을 수 있고, 동시 이메일을 통하여 다른 사람을 초대, 기념일 등록 및 알림기능을 이용할 수 있는 '나의 일정', 자신이 가입한 동호회나 모임 등의 일정을 이동하지 않고 자신의 일정관리에서 볼 수 있으며, 해당 모임에 대한 자동일정을 설정하면 자동으로 자신의 일정으로 등록할 수 있는 '모임일정' 서비스 등이다.

또한 '주소록' 서비스는 하이텔 유무선 통합 서비스인 my114 서비스([my114.hitel.net](http://my114.hitel.net))와의 연동을 통해 아웃룩과의 주소록 연동 기능은 물론 명함교환, 공유기능을 활용하여 실시간 주소록 갱신이 가능하다. 인터넷을 통한 주소록 서비스 제공은 물론 무선인터넷을 이용한 주소록 검색 기능도 제공하고 있어 기존의 주소록 서비스와 차별되는 특징을 갖고 있다.

지인간에 공유한 주소록 정보가 변경되었을 경우 지인의 주소록에 변경 내역을 갱신할 수 있는 기능을 지원하고 있어 전화번호, 직장변동 시에 일일이 연락을 취하지 않아도 돼 인맥관리가 필요한 인터넷 업계 종사자들에게 큰 인기를 끌 전망이다. 또한 공유에 따른 개인정보 유출을 막기 위하여 다양한 키 기능을 통해 모든 정보의 공개, 공유 여부를 결정할 수 있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 my114서비스의 가장 큰장점이다